

#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 성공작

### 경제적 효과 창출 지역 인지도 상승

“전북에 있는 게임 팬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즐기고 간단한 게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고 싶다”

9일 개최된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의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주최 측 대표 전라북도청 문화예술과 윤석중 과장의 말이다. 전라북도청과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K&SPA,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CJ E&M이 주관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매일 천여 명이상의 관객이 몰리며 대성공을 거뒀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윤 과장은 서두부터 “이런 큰 대회는 대부분 수도권에서만 개최됐는데 전북 전주에서 열린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의 말처럼 청소년과 청년층의 최고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과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팀배틀 정규 시즌 경기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어 윤과장은 “매년 40억 원을 투자해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북은 다른 지자체보다 이른 발걸음을 통해 게임산업을 지원해 와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은 매일 천여 명이상의 관객이 몰리며 대성공을 거뒀다.

또한 윤과장은 “게임은 특성상 재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것은 슬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활용방안만 잘 된다면 건전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좋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프 등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같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많은 마니아와 관광객으로 인해 좋은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관광객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과 지역 인지도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앞으로도 e스포츠 산업의 선두 지자체로 거듭 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기자



### 남원시 21일~27일 국제롤러 4개종목 개최

남원시(시장 이원주)에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춘향골 체육공원 롤러경기장 및 춘향골체육관, 서남대 체육관에서 스피드 트랙 및 로드, 슬라럼, 인라인하키 4개 종목에 걸쳐 상대적으로 개최된다.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주최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총 25개국 1,8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해마다 참가국 및 참가선수들의 증가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롤러 대회 및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롤러스포츠 국제종합대회라는 명성에 맞게 스피드(트랙, 로드) 뿐만 아니라 인라인하키와 예술을 접목한 슬라럼 종목에 국내외를 대표하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롤러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남원시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대회 분위기 조성 및 롤러 지면 확대를 위한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홈페이지에 인터넷 생중계 실시로 롤러의 진정한 묘미와 엄청난 스피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 대회를 통해 약 10억원의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기자

### 전라북도체육회 ‘트램폴린’ 운동 보급 힘써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새로운 스포츠 종목으로 ‘트램폴린’ 운동을 선정하고 보급을 위해 나선다.

도 체육회는 8일 전북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군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설명회에서 트램폴린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까지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시군별로 생활체육지도자 15명을 선발해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을 수료한 지도자들을 14개 시군의 다양한 동호인을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사무처장은 “스포츠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대적이고 세련된 다양한 종목이 신설돼야 한다”며 “트램폴린 운동은 일반 스포츠 종목과는 다르게 큰 무리 없이 단시간에 운동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시군지역에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 성황...다메사 수파 차라 우승

### 42.195km · 10km · 5km 코스 1만 1566명 참가역주

2016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가 10일 군산시 월명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군산시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하고 군산시민연합회와 전라북도육상경기연맹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풀코스(42.195km)와 10km 코스, 5km 코스 등으로 나뉜 이날 대회에는 1만1566명이 참여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마라톤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AAF)으로부터 ‘국제공인 코스’로 인증 받은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대회다.

코스는 시간여행으로 알려진 근대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군산의 원도심을 지나 금강하구둑~철새조망대~나포십자탑을 돌아오는 코스로 도로가 평평하고 골목이 적은 최적의 코스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다메사 수파 차라(Damesa Sufa Chala) 선수가 2시간 11분 43초로 우승한 가운데 외국

선수들이 순위권을 차지했다. 국내 선수중 최고기록은 남자부는 김영진(삼성전자) 2시간 17분 34초를 기록했고 여자부는 임예진(경기도청) 2시간 36분 5초로 결승점을 통과 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TV생중계를 통해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군산시의 생생한 모습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선수들과 가족, 대회관계자 등 50,000여명의 외래객이 군산을 방문해 숙박과 관광, 특산물 구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이 세계적 대회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심환경을 선진화하고 노선을 연중 관리하여 세계유수의 마라톤 코스와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최상의 코스를 조성해, 앞으로도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2016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가 10일 군산시 월명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순창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성료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열린 2016 ITF 순창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가 끝났던 대회 진행으로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대한테니스협회가 주관하고 국제 테니스연맹이 주최하며,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16세부터 18세의 연령을 가진 10개국 25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특히 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회가 열리는 공설운동장과 숙박시설을 오가는 순환버스 1일 12회 운영 등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공적인 대회를 치른 순창군은 전국에서 가장 큰 테니스대회인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여테니스대회’의 유치가 이번 대회 진행 중 확정돼 기쁨을 더했다.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여테니스대회’는 전국 중, 고등학교 남녀단체전 계기로 8월중 9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